

Celanese, 중국 초산 60만톤 투자!

Nanjing에 생산능력 60만톤 플랜트 건설 ... 2005년 가동 예정으로

Acetic Acid 산업의 선도기업인 Celanese AG가 중국의 Nanjing City에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Celanese AG는 플랜트 건설을 위한 중국정부의 승인을 획득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갔는데 가동년도는 2005년 후반 또는 200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투자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3년 자본지출 예산은 2억3000만유로이고 Acetyl 부분의 향후 3년간 자본지출액은 감가상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Celanese AG는 Nanjing City에 플랜트를 건설해 중국시장 및 아시아 전체에 핵심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Celanese는 중국의 Cellulose Acetate Tow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벌여 왔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회사인 Ticona가 Mitsubishi Gas Chemical 및 Polyplastics와 6만톤 Polyacetyl 플랜트를 착공했다. Ticona는 또한 Polyplastics에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elanese 및 BP 모두 중국에 Acetic Acid 플랜트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BP는 Chongqing 소재 Acetic Acid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20만톤에서 약 35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P는 또한 Formosa Chemicals 및 Fibers와 타이완의 Mai Laio 생산단지에 Acetic Acid를 생산하기 위한 50대50의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신설기업인 Formosa BP Chemical은 Acetic Acid 30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2005년 상업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Journal 2003/09/19>